

# '일자리 창출, 금융·민생 안정' 속제

###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 "올해 국정운영 중심 청년 '일자리' 창출"… 임종룡, 각 기관에 목표 제시

"일자리 창출과 금융시장 및 민생안정 또 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역대 최대인 187조원의 정책자금에 받는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불러 이 같은 속제를 내렸다. 임 위원장은 먼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정부는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청년 신규채용을 최대한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공공기관에는 모두 1000명의 신규 인력이 충원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5%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분야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후 임 위원장은 각 기관을 일일이 거론하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산은에 "5000억원의 회사채시장 인수지원 프로그램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채권시장안정펀드 필요 시 즉각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업은행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과 창업컨설팅 지원체계를 갖출 것과 자영업자 특화 여신심사 모형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축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는 중소기업의 버팀목 역할 수행과 함께 연대보증 폐지 후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는 7조원의 정책 서민자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쓰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 및 대학생,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 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자산매입 후 재입대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속제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의 민영화 안착과 예보제도 개선 및 대형금융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준비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와 위탁결제원은 크라우드 펀딩과 코넥스, 코스닥시장 활성

화와 함께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과 엄정한 시장규율 확립을 진행해야 한다.

금융보안원은 금융보안의 주체로서 보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모든 기관에서 조직기강 확립 및 내부통제에도 한 치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관장께서 결단력을 갖고 조직원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글서체와 코넥스, 코스닥시장 활성 /뉴시스

## "갤노트7 발화 원인, 배터리 자체 결함"

### 삼성전자, "2개 배터리에서 소손 현상 재현"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발화 문제의 원인을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삼성전자는 23일 서울 삼성동 자 사옥에서 '갤럭시노트7 7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품 20만대, 배터리 3만대로 진행된 대규모 총방전 시험에서 이같은 소손 현상을 재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갤노트7에 들어간 2개의 다른 배터리에서 각기 다른 원인으로 발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며 "해외 전문가들도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A 배터리는 배터리 우측 코너의 눌림 현상이, B 배터리는 비정상 용착물기가 절연테이트와 분리막 파손, 내부 단락을 유발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제품뿐만 아니라 각각의 검증 단계와 제조, 물류, 보관 등 전 과정에서 원점에서부터 총체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 삼성전자측의 설명이다. /뉴시스

## 쉐보레 '설 연휴 특별 서비스 캠페인'

### 26일~29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점검·소모품 제공

쉐보레(Chevrolet)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설 연휴 특별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쉐보레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페인은 진단장비 활용한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점검, 냉각수, 엔진오일 보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친환경 에탄올 워셔액, 벌브류 등의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준다.

이와 함께 장거리 운전 대비 차량 관리 및 안전운전 요령에 대한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쉐보레는 서비스 캠페인 기간 중 종합상황실(쉐보레 고객센터 : ☎080-3000-5000)을 운영, 명절기간 귀향, 귀경하는 고객들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 및 차량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 디젤차 배출가스 획기적 저감 촉매 개발

### 현대·기아-포항공대, "배기가스 온도 조건서 안정성 세계 최고"

현대·기아자동차는 포항공대 연구팀과 함께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정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내열성 질소산화물 저감 촉매'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기아차 배기촉매리서치랩과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홍석봉 교수 연구팀은 산화 연구를 통해 'Cu-LTA(카파 알티에이)' 제올라이트 물질을 개발했다.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시키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에서 사용되는 촉매로, 기존 촉매보다 내열성이 150℃ 개선됐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측은 "현존하는 모든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온도 조건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상용화가 이뤄질 경우 향후 엔진의

사용 영역 확대 및 연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고가의 기존 물질을 대체해 비용이 절감되고, 수입에 의존하던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을 국산화해 기술 로열티 수익도 기대된다.

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분야의 3대 국제 학술지로 평가되는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온라인 저널에 소개됐다.

아울러 연구팀은 관련 특허를 국내뿐 아니라 북미, 유럽, 중국 등에 출원 중이다. 향후 국내외 학계 및 관련 업계 등과 기술 상용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는 내연기관의 친환경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정화 기술을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배출가스 정화 기술 개발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 3영업일→2영업일로 단축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한을 카드사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맹점 표준약관'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매출전표가 전자적 방식이 아닌 실물로 접수된 경우(수기 매출전표 포함), 카드부정사용에 따른 분쟁·카드강·명의대여 등 대금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예외 항목으로 뒤 연장할 수 있다.

금융원은 이와 함께 카드사가 영업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별로 대금지급 기한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뉴시스

## 美금리인상에 지난해 회사채 발행 10.8%↓

### 전년 대비 13조2443억원 줄어... 회사채 잔액 409조5158억원 소폭 증가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회사채 규모가 1년 전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채권 가격 하락)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회사채 발행규모는 109조8579억원으로 전년(123조1022억원) 대비 13조2443억원(10.8%) 줄었다.

특히 일반회사채 발행실적이 9조7844억원(28.6%) 감소한 24조3766억원(281건)으로 집계됐다.

등급별로 보면 AA등급과 A등급은 각각 28.7%, 39.5% 줄어든 반면 BBB 등급 이하 발행은 31.1% 늘었다.

주요 발행회사는 SK(1조2000억원), LG전자(9100억원), 현대제철(8500억원) 등이다.

작년 말 기준 회사채 잔액은 409조5158억원으로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국내 시장금리도 올라 당분간 회사채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 주식 발행 규모는 10조25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2454억원(28.0%) 증가했다.

기업공개는 78건에서 3조9472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는 90건에서 6조3103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공개,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 등 삼성계열사들이 대규모 주식 발행에 나섰다.

회사채와 주식을 합한 전체적인 직접금융 조달 규모는 모두 120조11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9989억원(8.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 부안

으로

## 마실

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 扶來滿福